

## 능동문으로부터 피동문을 만드는데서 고려하여야 할 상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

리 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언어학부문에서는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잘 풀어야 합니다.》

조선어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언어학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그가운데는 능동문으로부터 피동문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상의 의미와 관련되는 문제도 있다.

능동문은 행동의 주인이 주어가 되어 행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것을 묘사하는데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문장구조를 이루고있다.

Ⅰ. 군대와 인민이 단합된 힘으로 웅장한 려명거리를 훌륭히 건설하였다.

피동문은 행동의 대상이나 피동체를 주어로, 행동의 주인을 보어의 위치에 놓고 행동주에 의하여 행동이 수행되는데 대하여 묘사하는데서 유리한 문장구조를 이루고있다.

Ⅱ. 웅장한 려명거리는 군대와 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훌륭히 건설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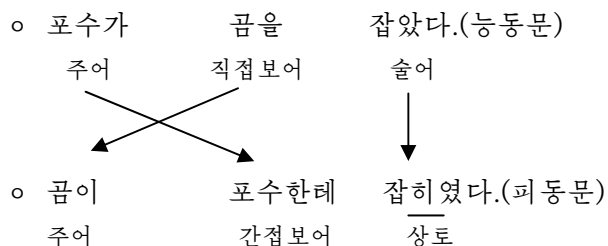
사회언어생활에서는 능동문으로 사실을 표현할수도 있지만 피동문을 써서 사실을 표현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예문 Ⅱ에서와 같이 려명거리를 이야기의 주제로 놓고 려명거리의 건설에 대하여 말하려고 할 때에는 피동문을 구성하는것이 더 의의가 있다.

그리하여 능동문으로부터 피동문을 만들어야 할 요구가 제기된다.

능동문이라는것은 행동주가 주어로 되고 행동은 행동주에 의하여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되며 동사술어에 상형태가 없는 문장이다.

피동문이라는것은 행동주가 보어로 되고 피동체가 주어로 되며 동사술어에 피동의 상토나 피동의 보조동사가 붙고 행동은 피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장이다.

능동문으로부터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능동문의 직접보어를 피동문의 주어로 놓고 능동문의 주어를 피동문의 간접보어로 만들며 동사술어에 피동의 상토나 상의 수단을 첨가하는 방법이다.



능동문으로부터 피동문을 문법적요구대로 만들 때 구성된 문장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피동문구성의 일부 경우에 발생하는 제약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문법에 맞게 능동문과 피동문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사회언어생활에서 옳게 써먹어야 한다.

실례로 능동문 《순이는 오빠의 꾸중을 들었다.》에서부터 피동문 《오빠의 꾸중이 순이에게 들리었다.》를 만들었다고 하자.

능동문: 순이는 오빠의 꾸중을 들었다.

피동문: 오빠의 꾸중이 순이에게 들리었다.

\*피동문에서 말하는 행동주의 행동은 동사원형이 가리키는 행동이다. 즉 《들리었다》에서 행동의 원형은 《듣다》이고 듣는 행동의 주인은 여기서 《순이》이다.

이러한 능동문과 피동문은 논리학적으로 보면 오빠와 순이사이의 꾸중을 주고받는 같은 내용이지만 언어학적으로 보면 오빠와 순이사이의 꾸중을 주고받는 내용뿐아니라 행동주가 행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가 아니면 피동체에 의하여 행동이 피동적으로 수행되는가 하는 상의 의미적측면에서 성립되는 차이도 있다.

우의 실례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드는 표준적인 방법을 적용한것이다.

이 방법에 의하여 례(오빠의 꾸중에 대한 문장)의 피동문이 만들어졌으나 문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능동문의 술어구인 《...오빠의 꾸중을 들었다.》에 피동의 어휘적의미가 들어있는데 있다. 순이는 자기스스로 마음이 동하여 꾸중을 들은것이 아니라 오빠로부터 꾸중이 자기한테로 튀어나왔기때문에 좋건싫건 듣게 되었던것이다.

동사 《듣다》는 행동주의 능동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타동사이다. 가령 능동문 《나는 음악을 듣는다.》에서 《듣다》는 행동주의 능동적이며 주동적인 행동을 표시한다.

그러나 우의 문장에서 순이는 오빠로부터 《오빠의 꾸중》을 듣게 된다. 즉 음악을 주동적으로 듣는것과는 달리 오빠로부터 꾸중을 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오빠가 순이를 꾸중하다》는것을 순이의 립장에서 능동문 《순이가 (그것을) 들었다.》로 표현한것이다.

어휘적인 측면에서 피동이라는것은 행동수행자가 행동을 당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간단히 《어휘적피동》이라고 표현할수 있다면 문법적피동은 상토와 보조동사 등에 의하여 표현되는 피동이다. 문법적피동은 행동주가 문장에서 보어로 되고 그 행동을 당한 피동체는 주어로 되며 동사술어에는 흔히 피동의 상토나 보조동사가 붙게 된다. 이와 같이 문법적피동은 문장전체에서 여러 문장성분들에 작용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어휘적피동은 행동주를 주어로 놓고서도 능동문의 형식으로 표현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오빠가 꾸중을 하는데 대하여 오빠의 켠에서 능동문으로 표현할수도 있고 꾸중을 당하는 순이의 켠에서 능동문으로 표현할수도 있으며 그것을 피동문으로 만들수도 있다는데 언어표현의 다양성이 있는것이다.

① 오빠가 순이를 꾸중하였다.(오빠를 주어로 놓고 그의 시점에서 짚 능동문)

② 순이가 오빠의 꾸중을 들었다.(오빠의 꾸중을 듣는 순이를 주어로 놓고 그의 시

점에서 짠 능동문)

- ③ 순이가 오빠의 꾸중을 당하였다.(순이의 시점에서 동사의 피동적의미로 짠 능동문. 동사 《당하다》는 어휘적으로는 피동이지만 순이를 주어로 놓고 만든 능동형의 문장이다. 즉 오빠의 꾸중을 당하는 일을 순이가 하는것으로 된다.)
- ④ 순이는 오빠로부터 꾸중을 받았다.(우와 같은 형식의 능동문이지만 보통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 ⑤ 오빠의 꾸중이 순이에게 가해졌다.(사역문형식의 문장인데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는다.)

...

이 실례들처럼 문장구성의 가능성은 여러가지이다. 그런데 주어진 실례가 두번째 문장이므로 그 문장에 국한하여 피동문을 만들면 《오빠의 꾸중이 순이에게 들리었다.》로 된다.

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꾸중》이 주어인데 그 형체가 감각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조선말에서는 형체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이 행동의 주어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다.

《바람이 문을 닫는다.》, 《바람이 배를 물에 끌어올리었다.》라는 문장들에서 그 실체는 있으나 형체가 없는 바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식의 문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형체가 없는 《꾸중》이 누구에게 들리었다는 식의 문장 역시 성립될수 없다.

다른 하나는 꾸중을 의도적으로 들은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오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리었다는 식의 문장형식은 성립될수 없다는데 있다. 그것은 레문(순이에게 오빠의 꾸중이 들리었다.)이 의도적이며 능동적으로가 아니라 순이가 피동적인 자세에서 꾸중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기때문이다.

\*성립되지 않는 피동문을 구태여 붙잡고있을것이 아니라 《오빠가 순이를 꾸중하였다.》라고 할수도 있다. 그러나 능동문에서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을 적용하는데도 피동문이 이루어지지 않는것은 여기에 일정한 제약관계가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능동문에 들어간 단어들의 결합구조가 능동문의 구조이지만 어휘적의미는 피동적인것이기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피동문을 만드는 경우 문장구성방법이 제대로 되어도 만들어진 피동문이 성립되지 못하게 되는것이다.

○ 전투에서 그는 왼팔에 부상을 당하였다.(능동문)

이 문장은 능동문이지만 동사의 어휘적의미를 보면 피동적인 성격이 있다.

부상을 당한 그는 자기스스로 바라고 한 일이거나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므로 동사의 어휘적의미는 《할수없이 객관적인 원인》으로 하여 부상을 입은것으로 된다. 말하자면 《부상을 당하》는것을 그가 《수행》하게 되는것이다. 즉 어휘적인 피동을 능동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이리하여 상의 의미가 실현되어 이루어지는 문장을 통털어 훑어볼 때에는 상토와 상황형의 표현구 및 보조동사 등이 참가하여 문장을 이루고있는 단어들의 어휘적의미와 문법수단들의 문법적의미가 다같이 능동문과 피동문을 만드는데 참가한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이 문장에서 피동문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야 할것이다.

○ 전투에서 그의 왼팔에 부상이 당하여졌다.(피동문) ×

문법적인 요구에 따라 능동문에서부터 피동문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동문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동사술어가 어휘적인 피동을 나타내는것과 관련된다.

능동문의 형식은 행동주의 주동적인 행동으로 되지만 논리적으로는 피동적인것으로 되어있다. 즉 부상을 자청해서 받은것이 아니라 할수없이 피동적으로 당하게 된것이다.

그러므로 동사 《당하다》에서 행동의 수행과정은 논리적으로 피동이지만 행동의 언어적표현형식은 《부상당함》을 행동주가 수행한것으로 되어있다.(... 그는 ... 부상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능동문안의 동사술어에 어휘적피동이 담겨져있는 상태이다. 거기에 다시 문법적인 피동을 표현하는 보조동사 《지다》가 들어갔으므로 결국에 가서는 2중피동으로서 《당하여지다》로 된셈이다.

조선말에서도 그렇고 일반언어학적으로도 2중피동이란 없다. 이리하여 우에 있는 피동문 《전투에서 그의 왼팔에 부상이 당하여졌다.》는 성립될수 없는것이다.

\*어휘적피동: 보조동사 《당하다》, 《입다》, 《받다》, 《지다》, 《되다》 등이 가지고있는 어휘적의미를 문법적피동에 대응하여 붙인 편의적인 용어이다.

문법적피동: 피동의 상토 《이, 히, 기, 리, 우, 구, 추》가 가지고있는 피동을 의미한다.

상토에 의한 피동 즉 문법적피동은 피동문안에서 동사술어에 상토가 붙는것과 함께 주어, 보어가 이루어지는데 작용함으로써 문장전체에 피동의 뜻이 성립하도록 작용한다. 그러나 어휘적피동은 제한된 단어들에 의하여 보장되면서 문장안의 주어와 보어의 변화에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다.

○ 회의에서 조동무는 조직으로부터 따끔한 비판을 받았다.(능동문)

이 문장에서도 구조를 보면 능동문이지만 《받다》는 어휘적의미가 논리적으로 피동을 나타낸다. 《비판을 주다.》, 《비판을 가하다.》는 논리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능동이다. 그러나 《비판을 받다.》는 언어적으로 능동이지만 논리적으로는 피동이다.

언어적으로는 능동과 피동을 필요에 따라 여러가지 방식으로 표현할수 있다. 이 능동문에서부터 문법에 따라 피동문을 만들면 다음과 같이 된다.

○ 회의에서 조동무에게 조직으로부터 따끔한 비판이 받아졌다.(피동문) ×

이 피동문도 조성방식은 규범대로 되었지만 현실에서 이 문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동사술어의 어휘적의미가 피동적인것이기때문이다. 즉 문장구조는 능동문이지만 동사의 어휘적의미는 피동이므로 거기에 피동의 뜻을 가진 보조동사 《지다》를 다시 붙이는것이 조선말의 문법적원리에서 볼 때 도저히 이루어질수 없는 사정과 관련된다.

이처럼 능동문으로부터 피동문을 조성하는 방식대로 피동문을 만들어도 동사술어의 어휘적의미의 성격에 따라 온전한 피동문이 이루어질수 없는것이다.

○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살인귀들에 의하여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죽었다.(능동문)

○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살인귀들에 의하여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죽어졌다

다.(피동문) ×

이 피동문도 피동의 어휘적의미를 다시 《지다》를 통하여 피동으로 놓았기때문에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살인귀들은 평화적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이 문장에서 동사 《학살하다》는 타동사이고 《미제살인귀들》이 주어가 된다.

ㄱ. 미제살인귀들의 야수적만행에 의하여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

ㄴ. 미제살인귀들의 야수적만행에 의하여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학살당하여졌다. ×

문장 ㄱ, ㄴ에서 《평화적주민들》이는 주어로서 피동적의미를 당하는것으로 된다. 이리하여 레문의 《무참히 학살당하였다.》는 능동문형식으로서 어휘적의미는 피동의 성격을 띠게 되는것이며 따라서 문장 ㄴ과 같은 피동문은 성립되지 않는다.

○ 예술경연에서 1등을 함으로써 그에게 상장을 수여하였다.

(예술경연에서 1등을 함으로써 그에게 상장이 수여되었다.)

○ 그는 예술경연에서 1등을 함으로써 상장을 수여받았다.

상장을 수여하는것을 그가 받았는데 말하자면 그가 수여받는 일을 주동적으로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문장형식은 능동이고 수여하는것을 받았다는 의미에서의 문장형식은 같아도 동사의 어휘적의미는 피동이다. 그러므로 이 능동문에서도 위에서와 같은 리치에 의하여 피동문이 이루어질수 없다.

○ 예술경연에서 1등을 함으로써 그에게 상장이 수여받아졌다. ×

여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첫째로, 능동문의 주어로 표시되는 대상이 본의아닌 일을 당하거나 피동의 뜻을 가진 동사에 의하여 행동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문장으로부터 피동문을 만드는데는 일정한 제약이 있으므로 능동문으로부터 피동문이 이루어질수 없다.

둘째로, 피동의 뜻을 가진 동사가 능동문에 있을 경우에는 어휘적으로는 피동이지만 문법적으로는 능동문을 이룰수 있다.

이상에서 조선어에서 능동문으로부터 피동문을 만드는데서는 문법적요구를 지켜서 얻어진 문장이 성립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론하였다.

앞으로 언어학부문에서는 능동문과 사역문과의 관계 등 여러 문장들에서 상의 의미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문법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더 깊이 연구함으로써 사회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실마리어 피동문, 능동문, 어휘적피동